
DOCUMENTATION

9 SEPTEMBER 2010

KUNSTHALLE GWANGJU

PRESS COVERAGE

BEST OF

KUNSTHALLE

GWANGJU

아시아문화마루

GWANGJU CITY / DONG-GU

CENTRAL PLAZA IN FRONT OF OLD PROVINCIAL HALL

아시아문화전당광장 / (구)도청 앞

TEL. / FAX: +82-(0)62-236-0730 / -0735

MAIL@KUNSTHALLE-GWANGJU.COM / WWW.KUNSTHALLE-GWANGJU.COM

PRESS COVERAGE OVERVIEW

18 MAR – 6 SEP 2010

TOTAL 160

PRINT TOTAL 91

NEWSPAPER 85

MAGAZINE 6

ONLINE TOTAL 60

BROADCAST TOTAL 9

TV 5

RADIO 4

한겨레 1 SEP 2010

미리보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

'문스트할레 광주' 어제 개관
실험적 공연, 첨단작품 전시

컨테이너로 만든 실험적 문화공간인 '문스트할레 광주'가 31일 문을 열고 광주에 새로운 명소가 떠올랐다.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이날 저녁 2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2010년 추공합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 전시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는 '문스트할레 광주'를 개관했다.

이 공간은 아시아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라는 뜻으로 '아시아 문화교류의 연결어울도'였다. 이 공간은 문화전당이 공식으로 준공될 때까지 4년 동안 운영하게 전시나 공연을 위한 예연차에 따라 바뀔 예정이다.

이 공간은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광장과 북동쪽에 컨테이너 박스 29개를 3층까지 성벽처럼 쌓아서 건축면적 320㎡(38평), 연면적 3019㎡(309평) 규모로 만들었다. 중앙 홀에서는 연상, 무용, 소리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들을 펼치고, 전시실과 공연장에서는 첨단과학, 미디어, 컴퓨터를 활용한 독특한 작품들이 선을 보인다. 3층 옥상은 리빙 형태로 인근 문화전당의 공사 전적을 살필 수 있는 전망대로 쓰이고, 동부 안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에선 세계 각국의 예술 도서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지문화 콘셉트를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아시아 문화교류-문스트할레광주 3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문을 열었다. 문스트할레 광주는 연면적 3019㎡와 건축면적 320㎡가 설계돼 있으며, 화요일 따라 소규모 도시실과 교육 공간, 전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앙에는 연상과 무용, 소리, 미디어 등이 결합된 공연이 열린다. **광주=김현숙**

개관행사로는 스위스 아트그룹 예프 에드-고요의 그룹전시가 11월 7일까지 열린다. 이어오는 이날 열린 개관식에서 다케이 히로미츠와 케이에유 와타 등 일본의 관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예프

이는 스페르릉 공 16개를 연결해 디지털 정보를 나누고 인체의 동작에 반응하는 '외덕'을 만든 것은 비롯해 '미션 인터 나트' '미모어 브루드' 등 실험적 작품들을 설치했다.

박물관 문화중심도시추진단 팀장은 "과학과 예술을 융합하는 등 새로운 영역을 미리 보여주는 공간"이라며 "오늘 30시부터 저녁 2시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말했다. **연락처** 02-312-0411@kwhi.com

서울신문 1 SEP 2010



컨테이너박스에 피어난 예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 콘텐츠를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아시아 문화마루-콘스트랄레광주'가 3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문을 열었다. 화물 컨테이너 29개로 구성된 '콘스트랄레 광주'는 건축면적 520㎡에 연면적 1019㎡ 규모로 광장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다. 광주 연합뉴스

광주매일

1 SEP 2010

실험적 문화공간 '쿤스트할레 광주' 개관

(아시아문화마루)

철제 컨테이너 29개로 구성...전시·교류의 장
스위스그룹 이토이展, 사진작가 김중만 참여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다양한 문화콘텐츠 공개

철제 컨테이너 29개를 조립해 만든 '쿤스트할레 광주'(국립아시아문화마루), 곁에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컨테이너 데미 같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흥미로운 풍경들로 가득했다.

한국에서 처음 작품을 공개한다는 스위스 아트그룹 이토이의 개성적이고 실험적인 설치 작품이 전시장 곳곳에서 관객을 맞이했다.

한국에서는 작가와 방문객들이 바에 앉아 대화를 즐기고 있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가니 신기한 작품들과 사진들이 걸려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지난달 30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마루-쿤스트할레 광주'를 정식 개관했다.

독일의 문화그룹 '클래튼'이 만든 '쿤스트할레 광주'는 국제적 서브컬처와 시민이 만나는 문화교류 공간인 동시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문화전당이 개관할 때까지 운영된다.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화요일 휴관)

쿤스트할레 중앙 홀에서는 영상, 무용, 소리, 청담미디어가 서로 합성된 새로운 공연들이 열리고, 전시실과 빛마당(아트야드)에서는 청담과락, 미디어, 컴퓨터를 활용한 국제적 작가들의 매우 독특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육상은 긴 회랑처럼 연결돼 전당의 공사 상황을 볼 수 있는 전경대

역할을 겸하며, 산책하듯이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활용된다.

소형 도서관에서는 세계 각국의 예술 관련 도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쿤스트할레 광주에서 소개되는 작품들은 문화전당의 생산 콘텐츠를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다.

추진단은 첨단기술, 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세계에 유례 없는 복합적인 개념이 담긴 문화

전당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쿤스트할레 광주를 마련했다.

개관 기념전으로는 스위스 아트그룹 이토이 코퍼레이션의 전시가 진행 중이다. 구제미 오브제 16개로 구성된 설치작 '타미타르', 어린아이를 위해 만들었다는 '이토이 브루드', '매션 이터니티', '수주가치' 등이 소개된다.

백남준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눈에 띄었으며, 특히 사진작가 김중만씨가 작품 '타미타르'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개관식에 참석한 김중만씨는 "클래튼 측의 제의를 받아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됐다"며 "사진이 아닌 설치작품에 소리를 덧붙이는 작업을 했다. 세상 곳곳의 소리를 담

아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재해석해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재밌는 발상의 프로젝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쿤스트할레 광주의 공동 총감독인 톰 뷔셔만(Tom Bueschman)과 크리스토프 프랭크(Christoph Frank)는 "15개월 전 쿤스트할레 서울을 지었는데, 벌써 또 광주에 쿤스트할레를 오픈하게 됐다"며 "광주가 참 매력적인 도시라는 것을 느꼈다. 광주와 사랑에 빠지게 될 것 같다.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는 광주는 가능성이 보이는 도시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236-0730.

/광주매일기자 news@hkdaily.com



30일 광주 동구 금남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마루-쿤스트할레 광주' 개관식에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매일기자 p21@hkdaily.com

전남일보 1 SEP 2010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31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마루-콘스트할레 광주'를 개관한 가운데 관람객들이 전시실을 둘러보고 있다. 배현터 기자 hbae@inboc.com

‘아시아문화마루-콘스트할레’ 광주개관

화물 컨테이너 29개로 구성... 2문화전당 미리 체험

광주도심에 국제적 문화교류 양식인 서브컬처(subculture·하위문화)를 만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미리 체험할수 있는 공간이 마침내 31일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마루-콘스트할레 광주'를 개관했다.

문화전당이 개관할때까지 운영될 '콘스트할레 광주'는 우선 건축면적 520㎡(158평)에 연면적 1019㎡(309평)의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공간부터 관람객들에게 소중히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기존의 건축개념을 떠나 재 활용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 29개를 쌓았으며 4각 입방체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가 광경을 중심으로 마치 성벽

처럼 둘러쳐지면서 중앙에 매우 단순하고 견고한 형태의 공연장과 전시장이 만들어졌다.

또 컨테이너 박스의 회랑을 따라 소규모 도서실과 교육 공간, 편의시설 등도 마련했다.

중앙 홀에서는 영상, 무용, 소리, 첨단미디어가 서로 합성된 새로운 공연들이 개최되고, 전시실과 뒷마당(아트야드)에서는 첨단과학, 미디어, 컴퓨터를 활용한 국제적 작가들의 매우 독특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육상은 긴 회랑처럼 연결돼 전당의 공사 상황을 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겸하며, 산책하듯이 유희를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활용된다.

소형 도서관에서는 세계 각국의 예술 관련 도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콘스트할레 광주에서 소개되는 작품들은 문화전당의 생산 콘텐츠를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다.

추진단은 첨단기술, 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세계에 유례없는 복합적인 개념이 담긴 문화전당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스트할레 광주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7시 콘스트할레 광주에서는 'E-Toy' 그룹전시와 피포먼스, 바비큐 파티, DJ피포먼스 등의 개관행사가 열렸다.

E-Toy 그룹은 1990년대 인터넷 문화 개척자로 사회적 이슈를 예술로 승화시킨 그룹이며 1996년 알스 임팩트노티가 골드 니카를 수상한 바 있다.

이기수 기자 ksk@inboc.com

무등일보
1 SEP 2010



쿤스트할레 광주 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 콘텐츠를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아시아 문화마루-쿤스트할레 광주가 3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문을 열어 E-T0y 그룹의 설치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임정욱기자

중앙일보

1 SEP 2010

연예 | 민주광장에 신개념 전시공간 문 열어 [중앙일보]

기사 나도 한마디 (0)

평주 문화전당 미리 체험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 31일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인 '쿤스트할레 광주'를 개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31일 개관한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 '쿤스트할레 광주'의 내부 모습. [쿤스트할레 광주 제공]

쿤스트할레(Kunsthalle)는 전시 공간(Art Hall)을 뜻하는 독일어다. 우리말 이름으로 '아시아문화마루'인 쿤스트할레 광주는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 29개를 쌓아 올려 건축면적 520㎡(159평), 건축연면적 1019㎡(309평) 규모로 만들어졌다.

'쿤스트할레 광주'는 시민들이 문화전당을 미리 체험하고, 문화적 활력을 일으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시민 참여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4각 입방체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가 광장을 중심으로 성벽처럼 둘러쳐지면서 중앙에 공연장과 전시장이 만들어졌다. 특히 3층 외관을 장식하는 옥외의 대형 영상 스크린이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내부는 복합공연장과 영상예술을 감상하는 '미디어스크린 월'(media wall), 문화 도서관, 아트 라운지 등으로 꾸며진다.

쿤스트할레 광주의 개관 행사로 스위스 출신의 국제적 예술그룹 이토이의 작품전이 11월 7일까지 이어진다.

유지호 기자

연합뉴스

1 SEP 2010



이형민우 기자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 콘텐츠를 미리 만나
'아시아 문화마루-쿤스트할레광주'가 3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
문물을 열어 사진작가 김중만씨 등 작가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9개로 구성된 `쿤스트할레 광주'는 연면적 1,019㎡에 520㎡ 규모
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다. 이 공간에는 회랑을 따라 소규모
공간, 편의시설 등이 들어섰으며 중앙에는 영상, 무용, 소리, 첨단
! 공연이 열리게 된다. <<지방기사 참고>> 2010.8.31

경향신문
2 SEP 2010



옛 전남도청 자리에 '아시아 문화의 전당' 개관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전시와 공연을 볼 수 있는 '아시아 문화마루-콘서트할레 광주'가 지난 31일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문을 열었다. '콘서트할레'는 임시로 꾸며진 전시·공연장을 뜻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화물 컨테이너 29개를 이어 만든 이 공간에서는 영상·무용·소리·첨단미디어 공연과 전시회를 볼 수 있고, 소규모 도서관·휴게실 등도 함께 들어섰다. 2014년 옛 전남도청 자리에 들어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격을 가늠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개관 기념으로 오는 11월7일까지 스위스 출신 예술가 그룹인 EToy의 다채로운 인터넷 문화예술을 보여주는 전시·공연이 마련됐다. 배명재 기자

무등일보 6 SEP 2010

광주, 월드뮤직 에키를 꿈꾸다 4.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결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표 콘텐츠로 육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표 콘텐츠로 육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아문전당)은 2010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아문전당)은 2010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아문전당)은 2010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정체성 담아내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부가가치 창출 기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표 콘텐츠로 육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아문전당)은 2010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아문전당)은 2010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아문전당)은 2010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표 콘텐츠로 육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아문전당)은 2010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아문전당)은 2010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아문전당)은 2010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이병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추진단장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할 것"

이병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추진단장
이병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추진단장은 10일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5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며, 이번 페스티벌이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이병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추진단장은 10일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5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며, 이번 페스티벌이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이병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추진단장은 10일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5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며, 이번 페스티벌이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광주 시민들의 내재된 '기' 발견 페스티벌 내한 관객 극적으로 증진 시 행정적 지원만-음료화 추진"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내한 관객 극적으로 증진
이병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추진단장은 10일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5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며, 이번 페스티벌이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이병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추진단장은 10일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5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며, 이번 페스티벌이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이병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추진단장은 10일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5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며, 이번 페스티벌이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이병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추진단장은 10일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5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며, 이번 페스티벌이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이병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추진단장은 10일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5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며, 이번 페스티벌이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이병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추진단장은 10일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이 5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며, 이번 페스티벌이 아문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

이병호는 지역문화발전기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책방송 3 SEP 2010

KTV 한국정책방송

광주비엔날레 성황리에 개막

[정책리인 10] 20100903 22:00



URL 복사 동영상주소 복사 동영상 크기 도움말

광주비엔날레가 어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6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는 등 문화중심도시로 비상을 꿈꾸는 광주로 가보시겠습니다.

빨간 통신에서 펼쳐지는 신명나는 퍼포먼스가 광주비엔날레의 개막을 알립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로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지난 95년부터 시작돼, 명실상부 국제적인 현대 미술 축제로 위상을 굳혔습니다.

세계 각지의 예술계 거장들과 수많은 언론과 커브 그래픽 등 다 파격로 차아스 IFL

NEWSIS 4 SEP 2010

유인촌 장관, 광수 문화관련 시설 찾아 바쁜 행보 펼쳐

NEWSIS 기사입력 2010-09-04 06:31



【광주=뉴스시스】 자유석 기자 = 3일 오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달 31일 개관한 '콘스트할레 광주'를 찾아 관계자들과 공간 내부를 돌아보고 있다.

'콘스트할레'란 현대예술을 아우르는 전시 공간(Art Hall)을 뜻하는 독일어로, 2014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광장에 설치되어 아시아 서브컬처 문화공간의 거점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주매일
31 AUG 2010



아시아문화마루 오늘 개관 광주비엔날레 등 현대미술 축제의 향연을 앞두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문화마루-콘스트할레 광주' 개막을 하루 앞둔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광장에서 관계자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콘스트할레 광주'는 건축면적 520㎡(158평)에 연면적 1019㎡(309평)의 컨테이너 박스 29개로 쌓아 만들어져 마치 성벽처럼 특이한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김재리 기자 kk@kdaily.com

광주매일

24 AUG 2010



콘스트할레 광주, 드디어 문 연다

〈아시아문화마루〉

옛 도청 앞에 설치된 복합문화공간 '콘스트할레 광주(아시아문화마루)'가 오는 31일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오는 31일 콘스트할레 광주를 공식 개관하며, 개관 행사도 11월 7일까지 스위스 아트 그룹인 이보이코퍼레이션(IboycorPORATION)의 전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콘스트할레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앞서 추진단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다.

지난 5월 12일 5·18 30주년 기념 특별전 '오월의 꽃' 전시를 통해 프리오픈 했으나, 5월 19일 옛 도청 앞 공남지하상가 붕괴사고로 그 일대가 폐쇄됐다.

프리오픈 당시 추진단은 "7월 말 개관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

31일 스위스 아트그룹 '이보이'展 공식 개관전

지하도 붕괴·공사차질로 한달여 연기 시민들 문화교류·체험 공간으로 활용

나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공사가 예정보다 늦춰지면서 오는 31일 문을 열게 됐다.

현재 '콘스트할레 광주'가 위치한 옛 도청 앞 공남대 인근 지역은 출입이 통제돼 있다. 추진단은 또 옛 콘스트할레 광주를 운영하는 플레인의 관계자는 "개관에 맞춰 이 공간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관계자는 "개관전을 시작으로 콘스트할레 광주는 작가와의 워크숍, 독립영화 상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콘스트할레 광주' 개관전을 장

식한 스위스 출신 국제적 예술그룹 '이보이'는 100명 명의 인터넷 검색 이용자를 (인터넷상에서) 납치한 프로젝트 '디지털 하이jack(digital hijack)'과 eToys.com 의 문화배틀 등을 통해 1990년대 중반 유명세를 얻으며, 디지털계 악동으로서의 평판을 얻어온 그룹.

이보이는 작품에서 삶과 죽음, 돈과 게임, 자본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 등에 관해 지능적이면서도 놀이방식으로 접근하고 풀어낸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시를 선보이는 이들은 행사 기간 동안 지역 작가들과 함께 다양한 퍼포먼

스와 공연도 선보인다.

그라스토프 프랭크(41) 콘스트할레 광주 감독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광주월드유치페스티벌 기자회견에서 "지역 사람들 혹은 광주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우리는 증거하는 역할만 담당한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이 콘스트할레 광주의 키워드"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아시아문화마루'라는 국문 이름이 붙은 복합문화공간 '콘스트할레 광주'는 건축면적 120㎡(158평)에 연면적 1019㎡(309평)의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졌다. 재량분이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 29개를 쌓아 특이한 모양을 형성했다. 추진단은 아시아문화마루를 국제적인 '서브컬처'가 교류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www.kbc100.com

E-FLUX 22 AUG 2010

e-flux

Guests Archive Projects About Sponsors Contact RSS

Pages: 10/200

Kunsthalle Gwangju



also CORPORATION

21 August - 7 November 2010

Busanjinbu Busemyeol
22 Gwangju-Dong, Gwangju-Gu,
Gwangju 700-000, South Korea
tel: +82 62 236 0700 | fax: 0
www.kunsthalle-gwangju.com

KUNSTHALLE GWANGJU: OPENING
OPENING CEREMONY also CORPORATION
"LIVING MASTERY BEHOLD."

As a part of the project 'You City of Asia Culture' KUNSTHALLE GWANGJU gives a preview to the future program and development to come with the completion of the Asia Culture Complex in the city of Gwangju. KUNSTHALLE GWANGJU is an art project itself. The concept and program evolves artists, visitors and the team to interact with each other. This means new questions, interesting tensions and inspiring moments. As a social institution the art is created by the existence of this venue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people.

KUNSTHALLE GWANGJU will introduce artists and projects that connect art and locality and observe in an artistic and cultural developments. While art is always there, which will present all its tasks as art. KUNSTHALLE GWANGJU's opening is an extraordinary example of an artist collective that connects artists on issues relevant to society, thus changing our perception of its technological and cultural conditions. Over the course of 12 years, this has consistently pushed the boundaries of art, even turning itself into a corporation, also CORPORATION, with information age, progress-minded, look for us as one of the biggest shareholders.

Most projects are technologically sophisticated yet accessible to the public. They often invite to participate and become integral part of their work. However based on the conventional range of their projects, they are all aimed at interesting in relevant technological discourses of 21st. Our projects are designed to form an insight on important issues in technologically advanced societies, which although lies in conveying critical reflection of contemporary technologies with technologists' advanced solutions to address emerging public.

While each of these projects carries a world of questions about the relation of human life, both on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level, and technological systems. It is only possible to understand this's impact as process between art, technology and the social system when considering the whole body of their works. Thus, if that mix of developing and existing projects is highly contextual and sometimes critical, it always offers creative desire for responsible to be stretched in and be drawn into their world. It is the non-artistic, open-conviction of art that makes also the perfect candidate to present to work at the opening of KUNSTHALLE GWANGJU - art as an open, participatory form of communication with society that does not feature its viewers.

If you wish to learn more about the major projects of also CORPORATION, exhibited in KUNSTHALLE GWANGJU, please visit www.also.com.

panel opening: 21 August 2010, 7 am
opening program: opening of also exhibition, performance by also with go also OFFICE and also PLATFORM
press preview: 28 August 2010, 11 am

opening period: 21 August - 7 November
opening hours: 10 am - 6 pm, 10 am - 7 pm
hos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fice for the City of Asia Culture
organized by: KUNSTHALLE GWANGJU & Gwangju International Center
supported by: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sia Office, BUNDESHA, LG

address of KUNSTHALLE GWANGJU:
22 Gwangju-Dong, Gwangju-Gu,
Gwangju 700-000, South Korea
tel: +82 62 236 0700 | fax: 0
www.kunsthalle-gwangju.com

Press Contact:
PLATFORM KUNSTHALLE
22 Gwangju-Dong, Gwangju-Gu,
700-000 Seoul - South Korea
tel: +82 2 3447 1151 | fax: 0
www.kunsthalle.com
info@kunsthal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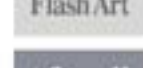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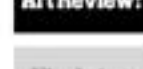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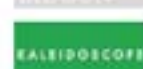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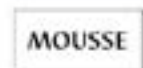
Tools

- Print
- Enlarge font
- Share on Twitter / Follow us
- Share on Facebook
- Send to Email
- Subscribe to

Forward to

Destination email:

Your name:



한국경제

16 AUG 2010

[포토] 쿤스트할레 광주에 대해 설명하는 안톤솔츠, 크리스토프 프랭크



[이완희 기자]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0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 세계 월드뮤직의 축제가 될 '2010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은 국제적 뮤직 페스티벌 육성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총 21개국 42개 팀의 세계 최정상급 해외, 국내 뮤지션이 대거 참여하여 보사노바, 플라멩코, 살사 등의 월드뮤직을 대중들이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음악축제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병훈 추진단장, 인재진 감독과 아티스트 나윤선, 허윤정, 김동원, 쿤스트할레 광주를 준비한 크리스토프 프랭크와 안톤 솔츠가 참석했다.

조선일보 11 MAY 2010

사회 * [호남] 신개념 예술공간 '콘스트랄레광주' 개관
 권재형 기자 shin@joon.com * 거제도 김홍 기자 등

기사 100자량 (4)

일정: 2010.05.11 09:00

12일 프레오존 기념행사 "아시아문화경관 선도법"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문화도시추진단 단장 이원용)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 민주광장에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 '콘스트랄레광주(아시아문화대주)'를 설치, 12일 프레오존 행사를 연다.

문화도시추진단과 5·18 계50주년기념행사위원회가 공동으로 5·18 계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프레오존 행사는 국제현대미술제 "오탈의 숲", 전시는 콘스트랄레광주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동시에 열린다.



▲ 옛 콘날도를 모티브로 한데다 벽스 29대를 설치 한 신개념 문화예술공간 '콘스트랄레광주'가 12일 프레오존 행사를 위해 개관했다. 오탈의 숲, 국제현대미술제, 전시는 콘스트랄레광주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동시에 열린다.

문화도시추진단이 지난 해 12월부터 공비한 '콘스트랄레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뿐 아니라 제형에도 특화되고, 문화적 활력을 일으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시선 끌고와 새로운 전거를 만들거 위해 만든 공간.

수출을 견제0년 박스 29대를 설치 물려 건축면적 520㎡(159평)의 연면적 1019㎡(309평) 규모로 만들어 냈다.

4각 입방체 형태의 현대어니 박스가 광장을 중심으로 마치 성벽처럼 둘러쳐지면서 중앙에 매우 단소하고 견고한 형태의 공연장과 전시장이 만들어진다.

여러 개의 다양한 내부공간으로 나뉘어 완공되는 콘스트랄레광주는 우선 3층 외관을 장식하는 벽이다 대형 영상스크린으로 시선을 끈다. 내부에는 '계내 복합공연장'과 영상대중 감상용 위한 '디디에스크린 홀 (media wall), 야외공연장인 '옥외 여방아들', 문화 관련 서적과 강의를 볼 수 있는 '아프 라운지'라, 시민과 관광객이 만나고 소통하는 '아프 라운지' 등으로 구성된다.

콘스트랄레광주는 5월 행사기간 내내 미디어 영상 설치 등 현대미술작품물 전시한 규, 전제20여 곳사와 만화시골 설치 등 거대한 거처 7월 30~31일 까지 개관할 예정이다. 콘스트랄레광주에서는 이후 한 달 동안 20여의 개관기념 전시물이 이어진다.

콘스트랄레광주의 무리말 걸침은 '아시아문화대주'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 일 건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 한 명칭 공모에 출한 422개 작품 가운데 5개의 우수작을 선발, 최종 선정됐다. 새 이름은 '아시아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모이는 장소, 교류되는 장소'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문화도시추진단은 밝혔다.

추진단은 '아시아문화대주'와 '콘스트랄레광주' 중 2개의 이름을 함께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년용 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인 "출출이 앞인 견제0년공장은 실용적이고 뛰어난 건축의 성찰으로 기존 고집된 미술관이 있어나지 못한 다양한 문화용 자유롭게 소개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할을 3"이라고 "모래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를 무대로 현대적인 아트를 활발히 선보이는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일보 13 MAY 2010

29개 컨테이너 박스에 핀 오월 정신

콘스트 할레 오픈...툼 뷔세만 디렉터 “광주문화인과 소통”



툼 뷔세만 씨.

29개의 컨테이너 박스에 오월 정신이 활짝 피어났다.

광주민중화운동의 현장이었던 구 도청 앞에 들어선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문화공간인 '콘스트 할레 광주' (아시아문화마루)가 12일 드디어 공개

됐다.

정문에 들어서자 다양한 설치품들이 컨테이너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공식 오픈일은 7월 말이라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내부에는 '오월의 꽃' 전시공간으로 손색이 없었다.

수출용 컨테이너의 재질인 금속이 주는 무박함이 광주의 그것과 닮은 듯했다.

5·18 당시 주 무대였던 구 도청 앞 광장과 이를 전담했던 군부대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한 권승한 씨의 디지털 프린트 작 'Th at Place'와 서민의 삶 같은 비닐포대를 싸집은 김주연 씨의 '티셔츠' 등 컨테이너 곳곳에 설치된 작품들은 2010년 5월을 30년 전으로 재생시키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톰 뷔세만(45) 콘스트할



광주 옛 도청 앞에 29개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문화공간인 '콘스트 할레 광주' (아시아문화마루)가 12일 오픈했다.

레 디렉터는 "80년대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광주의 도청 앞에 콘스트 할레가 세워져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지역 예술인과 소통하면서 광주 정신을 잘 담아낼 수 있게끔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15년 정도 광주를 방문한 그는 이어 "1968년 독일도 광주처럼 정치·사회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가 있었다"며 "따라서 광주가 전근하게 다가오고 사회 변화 에너지와 저항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베를린과 서울에 이어 광주에 문을 연 콘스트 할레는 서브 컬처 문화공간이다.

'콘스트할레 광주'는 앞으로 광주지역

의 비주류 문화를 담아내며 지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오피레이팅 메니저 등 8명 인력에 의해 운영된다.

툼 뷔세만은 "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기 전까지 쇼케이스 역할을 하고 문화 체험 공간이 될 것"이라며 "또한 지역 내 예술가단체들과 소통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광주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톰 뷔세만과 공동 디렉터인 크리스토프 프랑크는 이날 말 광주를 방문한다.

조사라 기자 srcho@nibocan

광주일보 29 APR 2010

“아하~ 컨테이너 박스가 예술공간이었네”

시민 눈길 붙잡는 옛 도청 앞 '콘스트랄레 광주'

“여, 저 건물 컨테이너 박스잖은 뭐지?”
최근 옛 전남도청 앞에서 등장한 건물 컨테이너 박스들이 시민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다. 무질감하며 경건해 보였기에 성문으로 '콘스트랄레 광주'라고 쓰여진 컨테이너들이 하나둘씩 전파되어 현재 30여 개가 자리를 잡았다.
'콘스트랄레(Konstralle)'는 독일어로 예술, 미술(Art)을 뜻하는 Kunst와 홀·공간(Hall)을 뜻하는 Halle의 합성어로, 여기서 구어 방식로는 전시공간을 말한다.
'콘스트랄레 광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



'콘스트랄레 서울'의 전경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일대에 새로운 문화공간인 '콘스트랄레 광주'가 첫 선을 보였다. 이곳으로 오는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전까지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된다.

4/29일자 jnews@kwgju.co.kr

독특한 모양의 전시·공연장
신개념 복합 문화공간으로

2014년까지 29개 박스 들어서
내달 12일 '오월의 꽃'으로 첫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아시아문화전당에 의해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이다. 주관단인 컨테이너 박스 내부를 공연장과 전시실, 세계 각국의 대표작품 전시를 담당할 수 있는 아트 갤러리의 용으로 구해 문화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명소로 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기로 오는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전까지 지역과 문화 감성을 풀어줄 수 있는 매력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박스 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는 오는 2014년까지 이 일대에 연면적 1천5㎡, 건축면적 500㎡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 29개가 들어서게 된다.
우선 주관단은 오는 5월 광주비엔날레재단과 함께 5·16 광주민중광장 30주년 기념 '오월의 꽃'(3월 12일~4월 13일)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광주시민들에게 청산을 보인다. 오는 공사는 오는 8월말 마무리되지만 '오월의 꽃' 전시와 맞춰 프레스코를 할 예정이다.

콘스트랄레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제작되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독특한 이미지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컨테이너는 어떤 건축물보다 이동이 자유롭고 유연적일 뿐 아니라 다른 전시 공간에서는 담을 수 없었던 새로운 다양한 문화물 여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콘스트랄레는 '문화콘'이란 책임회사에서 기획 및 모양을 대안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4월에 마천당에 이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두 번째 문화콘 콘스트랄레를 지었다.

'콘스트랄레 서울'을 통해 취는 자음들을 겹쳐서라는 클러티, 글은 작가들을 위한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갖추고, 무대 앞에는 종고와 화려한 라우저 광 광업으로 반상에 서울의 대표 문화 명소를 자리잡았다. 건물이 아름다워 제2회 한국 건축가 협회상 수상작에 선정되기도 했다. '콘스트랄레 광주'는 '문화콘'이 직접 설계·시공을 해 광주지역에 새로운 문화물 단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문화전당사업추진단 관계자는 "콘스트랄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콘스트랄레' 주변 계층의 취향(문화)을 보여주는 공간이다"면서 "다양한 문화물 민중화면서 함께 어울려 볼 수 있는 중심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4월 29일자 jnews@kwgju.co.kr